

“도내 교육계획 실천 가능 업무 보고를”

도의회 교육위 정책질의

- 양용모 “학교 비정규직 해결 획기적 자세 가져야”
- 최영규 “교사 자살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 마련하라”
- 최인정 “동남아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 방안 찾아라”
- 강병진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 위해 교육협력 강화하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병식)는 지난 2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질의에서 “형식에 그친 업무보고가 아닌 도내 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업무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발령받은 부교육감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자 하는 분야를 묻고 올해에는 도민들이 도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걸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최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면서 “올해는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예산이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 공사가 대폭 늘어난 만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도 충



자율주행차량 시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민남의관광장류게소에서 신형 수소자동차 넥소(NEXO) 조수석에 탑승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자율주행차량 시승

분히 확보할 것”을 전했다. 양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은 획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선별적 전환 검토는 새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인정(군산8) 의원은 “도내 A학교의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배우 안타까운 사인이나 만큼 사건원인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최인정(군산8) 의원은 “다문화가 많은 전북이 다양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면서 “특히 기초학력미달 학생

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별 원인과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부모 이외 지역사회가 농촌학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육청에서 일반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 등과 교육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2022년까지 지역인재 신입 30% 채용·이주율 75% 등

혁신도시가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된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했다면, 시즌 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

화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신입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캠퍼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공동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119 안전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현재 58% 수준에서 2022년까지 75%로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최대 1000개 늘린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혁신도시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양성·공동 연구개발(R&D)·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생활권내 상생 균형발전을 모색한다.

구도심과 연계해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혁신도시특별회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 지원을 연계한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시스

정동영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이 통과되면 화물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서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발견되면 해당 운전자는 화물차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행정위, 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2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이도영 부위원장(전주2)은 “도 차원에서 특별점검이나 특별조사 등을 나갈 때 약 1주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기간에만 문제를 시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재 점검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각 소방사에서 불시확인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각장애에 대한 실효성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전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업소 체육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는 소방관련 사전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여 각 시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충분히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제도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말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여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지난 2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전주 다가 민방위 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세부시설을 점검했다.

한완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전주 다가 민방위 대피시설의 시설현황 및 활용내용, 현장의 예로사항 등을 청취, 안내표지판 부착 및 물건정리 여부, 시설물의 노후화 등을 세밀히 점검하며 연일 발생하는 지진,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상시 도민이 신속히 대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의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보강하여 민방위의 사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민께 묻습니다

이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1. 전주시민 누구나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곳
2.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
3. 짜릿함과 즐거움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
4. 마음을 힐링해 주는 곳
5.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곳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자전거경륜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덕진수영장 승마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게이트볼장
론볼장 덕진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공원 숲내체육공원 고덕축구장 교통약자지킴이 전주승화원 봉안당(원) 효자공원·공동묘지 효자자연장